

# 서울에 대한 사색

전 철 \*

2004년 10월 24일

## 1

지난 봄이었을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 뉴스를 ARD에서 처음 본 후, 그로 인하여 적지 않은 시간 생활의 리듬이 깨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유증이 무서워스러웠을까요. 그 덕분에 한국의 상황에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며칠전 개인적으로는 탄핵만큼 충격적인 소식을 뉴스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결정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시간을 내어 KBS의 심야토론을 시청하니 그동안 행정수도 이전에 대하여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었는지를 그나마 구체적으로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사태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미래에 역행하는 판결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중대한 정책이 좌절되어서 아쉬워하며 마지막 말에 눈물을 글썽이는 유시민 의원의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착잡하였는지 눈물이 났습니다.

아마 한국시간으로 1시가 넘게까지 토론이 이어졌을 겁니다. 그렇게 고단한 대한민국의 밤은 다시 깊어가고, 뜬 눈으로 그 긴 밤을 맞이할 듯한 가슴 시려하는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다리 건너편 생맥주를 잘 만드는 Vetter에 가서 잘 익은 맥주를 사서 기숙사 가까이 사는 친구 알렉산더의 집으로 갔습니다.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나서 며칠 전에 본 히틀러 영화도 같이 이야기 하고 논문 이야기도 하고,

---

\*전철의 신학동네 <http://theology.co.kr>

한국 성매매여성에 대한 국가적 단속으로 인해 그들의 삶의 생존권이 문제가 될 경우 앞으로는 공창이 되어야 할 지 아니면 완전 폐지가 되어야 할 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독일은 공창제이며 매춘부가 실업을 하면 국가에서 실업수당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도인 본에서 베를린으로 옮기는 과정에 국회에서 논의가 있었던 여러 이야기들, 그리고 현재 베를린이 처한 여러 어려움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 2

대한민국의 행정수도 이전이 현재에서 위헌판결을 받았다는 것, 즉 행정수도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국민투표가 아니라 국회에서 헌법을 바꾸고, 그 동의를 국민투표를 통해서 얻어야만 가능하다는 말은, 까놓고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을 노골적으로 하지 말라는 경고와 다를 바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 이외에도 납득하지 못할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여하간 내가 개인적으로 많은 기대를 가졌던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중요한 대의를 지닌 노무현 정권의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좌절되었다는 것은 아주 큰 안타까움입니다.

친구에게 서울이 어떤 동네인지도 이리저리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독일 토박이인 알렉스는 미국의 유학시절 그곳에서 사랑하는 연인 제니퍼를 만나서 같이 독일로 오기까지 했으나 아직 서울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서울에 대한 정보가 별로 정확하지 않아도, 사실 나의 정보 자체가 얼마나 우수짱스럽고 이해가 안되는 것인지는 그 친구의 반응을 통하여 아주 쉽사리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서울이라는 도시에 대한 각양각색의 의미들을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의미는 다양하게 부정적으로 혹은 긍정적으로 부여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있었을 때에 도시 서울의 의미는 그나마 중립적이었으나, 이제는 매우 부정적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 3

요즘에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사실 남들 다 했던 식상한 생각들이기도 합니다. 사회적인 시스템이 아무리 구현된다 하더라도 그 시스템의 구성원인 인간의 “욕망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대의적인 시스템의 변화를 위해 시스템의 구성원인 개인의 욕망을 얼마나 포기할 수 있는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혹은 사회적인 시스템의 변화가, 인간 욕망의 자발적 변화와 제어를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들리는 통계로는 서울 시민 70퍼센트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반대를 했다고 하고, 또 헌법재판소에서는 9명의 재판관 가운데 8명이 행정수도 이전을 위헌으로서 반대했다고 합니다. 나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행정수도 이전이 오히려 피해가 되는 경우는 기껏해야 10퍼센트나 될까 싶습니다. 물론 70퍼센트라는 반대에는 행정수도 이전이 본인에게 진정 불리한가에 대한 고려와, 현 노무현 정권에 대한 반감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었을 것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이 본인에게 도움이 되어도 노무현 정권이 싫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정책에 대한 반대를 하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보면 행정수도 이전에 의해 실질적인 기득권을 빼앗게 되는 10여프로 정도의 기득권자들에 의해 나머지 60프로가 눈과 귀를 차단당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행정수도 이전의 홍보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도 있긴 하겠지만요.

사실상 수도가 이전되면 그동안 쥐어졌던 경제적 문화적 불로소득의 하락을 염려해야만 하는 고위 기득권자가 서울의 70퍼센트나 된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작은 영세업자도 서울이전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가계의 수입저하에 대한 공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문제이거나 일부 기득권여론과 언론의 호도가 조성한 공포일 수도 있습니다.

### 4

개인의 행동은 자유롭습니다. 사회는 이러한 자유로운 개인의 행동에 의해 형성되어집니다. 시스템은 어떠한 사회적 경험이 지속되면서 패턴으로 구현

되는 산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판단과 행동은 사회와 시스템 구현의 직접적인 구성요소입니다. 하지만 개인은 개체이기 때문에 개체와 개체간의 결합체인 사회와 시스템의 전체성에 의해 결국은 제약을 받습니다. 즉 개인의 자유로운 행동은 개인의 공간을 형성하지만, 그 개체의 궁극적인 집합체인 시스템에 의해 개인의 공간이 제어됩니다. 개인의 공간이 직접적이라고 한다면 시스템에 의해 영향을 받는 차원은 시간의 경과 속에서 누적적이며 매개적으로 진행됩니다. 즉 우선은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 시스템은 어떠한 기제보다 견고하게 개인의 공간을 제어하게 됩니다.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는 아주 기분 나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제주도로 가는 것보다 서울로 가는게 어쨌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말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로 가는 것이 도움이 실질적으로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서울로 갔고 그러한 개인적인 행동은 어떠한 유의미한 결과를 개인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개인의 판단이 사회적 차원에서 어떠한 형태를 띠게 되며, 하나의 특정한 시스템으로 형성이 되고 다시 개인을 제어할 때입니다. 더군다나 개인들의 선택으로 구성된 시스템이 더 이상 그 개체적인 선택 목적에 상응되지 않을 경우는 더 큰 문제입니다. 개인에게는 이익이 될 수 있는 판단이 이젠 더 이상 효력을 갖지 못하는 그 ‘균열의 시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개개인의 이로운 판단의 집합들이 이제 더 이상 개인의 이로운 판단을 허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말하자면 지금의 서울이 그렇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 5

행정수도 이전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자발적 선택과 자유의 문제로 현존하는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구현, 유지될 수 없다는 일종의 시스템적 자각일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핵심요소를 삼으로 파서 지방에 심는 커다란 시스템적인 자각이자 정책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개인적 선택의 차원에서 존재하는 국민이 있듯, 국민의 판단에 의해 구현된 시스템을 다루고 수정하는 대의체인 사법 입법 행정의 구성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할은 개인의 공간을 최소한 침해하지 않으며 개인들의 사회적 공존을 도모

하게 하는 시스템의 교정에 있는 것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이 지니는 여러 사회적 의미와 개인적이고 국가적인 삶의 질의 향상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의 시스템을 보완하고 수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개인적인 욕망의 문제에 초연할 수 있었던가에 대한 실로 의심스러운 물음입니다.

어떤 네티즌이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현재가 저기 경남 남해 정도에 있었다면 이런 판결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즉 시스템을 다루는 그 최고의 대의기관의 판단에서 얼마나 개인적인 욕망이 연루되는지에 대한 지극한 의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씹쓸하고 불우한 상상입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것은 이러한 의심이 꼭 상상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실은 그렇게 냉혹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위헌 의견보다는, 그들을 수구 꼴통으로 부르는 사람들의 의견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법의 차디찬 엄격함과 숭고함은 어디 도망가고, 판단의 법정 밑에서 다섯 손가락으로 그들의 몇 평 부동산 값을 셈하는 영혼들로 보였습니다.

중고시절 우리에게 회자되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 독재자가 그 자식의 고등학교 입학에 대해 고등학교 입학시스템을 평준화로 바꾸었다는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갈 수록, 내안에 지닌 혹은 내 이웃이 지닌 인간의 욕망의 깊이와 넓이를 놀랍게 깨달아가면 갈 수록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들이라는 확신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나는 현재의 재판관 가운데에서는 그가 사는 강남 땅값 하락을 염려해서 수도이전을 반대했던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판단은 꼭 의식적일 필요도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기만적인 합리화를 충분히 지혜롭게 구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욕망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 욕망은 다시 인간의 의식을 기만할 수 있습니다.

## 6

나는 서울이라는 회색빛 삭막함에 내 20대 인성과 영혼이 피폐해진 듯한 경험만 갖고 있을 뿐, 서울의 땅 한 평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서울 이전을 반대하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서울에 대한 이해

관계가 없고, 오히려 그곳에서 불편하게 살았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이라는 경제적이고 정치적이며 문화적인 기득권에 아주 작게라도 연루된 사람들이 서울 이전을 반대한다 하더라도 사실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욕망에 충실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힘겹고 버겁기 때문입니다. 남대문에서 호떡을 파는 마음 좋으신 아주머니도 서울 이전의 문제는 생존의 문제와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서울은 거의 지옥에 가까운 곳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니 거의 확신에 가깝습니다. 그곳은 지극히 정상적이지 않은 도시입니다. 몇 년 전 내가 한국에 있었을 때 서울에 있는 독일 지사로 파견나왔던 친구는 나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생존을 하면 세계 어디를 가도 생존할 수 있으며, 서울에서 운전을 잘 하면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겁낼 도로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나는 그때 이해만 했지만 지금은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 7

행정수도 이전의 문제는 몇 푼 땅 값과 호떡 값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전의 대의는 고리타분한 경국대전을 들먹이면서 반대해야 할 간장종지와 같은 정치적인 판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미시적으로는 600년동안 응축되어왔던 서울에서 전 대한민국으로의 문화적 정치적 권력의 이동과 공유이며, 거시적으로는 조화의 심성을 지녀왔던 대한민국 국민들간의 공존과 평화를 다시금 회복하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한 곳에 머물렀던 권력 중심의 이동과 전국적인 확산은 이어지는 세대와 역사를 위해 만들어 나아가야 할 우리 모두의 절실한 과제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진정 수백 년동안 서울로 응집되어 왔던 권력이었기에, 향후 수십 수백 년이 걸릴 수도 있는 버거운 과제라 하더라도 말입니다.